

정부 R&D예산 소재 중심으로 재편

소재 · 부품 R&D예산 60% 소재 지원 ... OLED · 탄소 · 희토류 개발

정부가 소재 분야에 대한 R&D 지원을 확대한다.

지식경제부는 11월1일 코엑스에서 소재산업 성장을 위한 <소재 · 부품 미래비전 2020> 선포식을 열고, 소재 · 부품 연구개발(R&D) 예산에서 소재 분야에 지원하는 비중을 2010년 43.5%에서 2020년까지 60%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

또 그동안 부품 중심으로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소재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며 30대 전략적 핵심 소재와 10대 핵심 국방 소재를 선정 및 발표했다.

30대 전략적 핵심 소재는 화학, 섬유, 금속, 세라믹 등 4개 분야에서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) 핵심 소재, 초경량 탄소 소재, 디스플레이 형광체용 희토류 소재, 초전도 소재 등이 선정됐다.

지경부 관계자는 “2020년 세계 시장규모가 3억달러 이상에 달하면서 시장점유율 70% 이상 달성이 가능한 것들을 모은 것”이라고 밝혔다.

10대 핵심 국방 소재는 최소저항 유체표면 구조재, 내마멸 세라믹 다층 코팅재, 전자파 흡수 복합 소재 등이다.

지경부는 “비전이 성공하면 2020년까지 수출에서 소재 ·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9.1%에서 55.0%로 늘어날 것”이라며 “금액으로 환산하면 2010년보다 2.8배 증가한 6500억달러이며, 무역수지 흑자는 3.2배 늘어난 2500억달러에 달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아울러 매출 2000억원, 수출 1억달러 이상의 소재 · 부품 <중핵기업>도 241개에서 800개로 늘고, 전문기업도 3353개에서 6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

한편, 10개국 60개 글로벌 소재 · 부품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250여개 국내기업 관계자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으며, 4건의 MOU를 체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1/01>